

다이와보의 “OE 사가 아닌 OE 사”

다이와보의 소재개발과장은 방적 자(子)회사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공장인 “와까야마” 공장의 임원에게 “OE 정방기로는 고운 실을 만들 수 없나”하는 지령을 내렸다. “와까야마” 공장은 일본에서도 OE 정방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잘 가동하고 있었는데, 본사의 지령을 받은 임원은 즉시 생산현장의 방적과장에게 지령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생산현장으로부터 좋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와까야마” 공장의 일선 책임자는 지령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OE 사라고 하면 원래 잔털이 적어, 링 사보다도 고운 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사의 개발과장은 마침내 직접 “와까야마” 공장에서 현장의 생산책임자와 개발의 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거듭하였으나,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쉽게 정해지지 않았다.

2003년 5월의 연휴를 끝내자 본사의 개발담당 부부장(副部長)이 직접 “와까야마” 공장에서 일선 생산책임자와 함께 OE 사의 개발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 출장에서 “지금까지의 OE 사가 아닌 새로운 OE 사를 만들기”로 개발방향을 정하였다. 이들이 결정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은 “클리어(clear)하고 소프트(soft)하며 잔털(hair)이 적고 벌키(bulky)한 실”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미지(image)를 정하였다.

그 동안 개발방향을 정할 수 없어 고민하면서도 생산현장 책임자는 여러 각도에서의 방적을 시도해 보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혹시나 할만한 것을 골라 참고하면서 새로운 방적을 시도해 보았다. 본사의 책임자는 새로 방적된 실을 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세번수 링 사용의 섬유가 가늘고 섬유장이 긴 고급면을 사용해 보면 어떻

까”하고 제안하였다. 현장 생산 책임자는 지금까지의 OE 사 방적의 전(前)공
정부터 수정하여 다시 방적하였다.

그리고 나서 1주일 후 “와까야마” 공장에서 새롭게 생산한 OE 사의 샘플
이 본사에 도착하였다. 이 OE 사는 “에어 컴팩트”라는 상표로 상품화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OE 사가 아닌 새로운 OE 사”였다.